

# 광주·전남 기업들 “2분기 경기 크게 나아질 것”

광주·전남 기업들은 2분기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4년 2·4분기 제조업 경기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역 116개 제조업체의 2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는 ‘11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분기의 ‘87보다 무려 29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치 ‘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BSI 전망치가 110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분기(114) 이후 2년 만이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40%(전분기 17.6%)로 ‘불변’ 35%.

## 광주상의 ‘BIS 116’

1분기보다 29P 상승

2년만에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도 호전 전망

7%(전분기 51.3%)과 ‘악화’ 24.3%(전분기 31.3%)보다 더 많아져 전분기까지 위축됐던 체감경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0→121)과 수출기업(122→135)뿐 아니라 지난 2년간 기준치(100)을 넘지 못했던 중소기업(88→115)과 내수기업

## 기업경기 실사지수(BIS)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 한 지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좋다고 판단한다.

(80→110)도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대내외 여건 호전으로 생산과 내수매출, 수출매출이 증가하고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관련재 등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수주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수주 확대를 기대하며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료(117)와 1차금속·조립금속(138)은 성수기 효과로 매출 및 수주 증가를 기대했고 전기·전자(129)와 고무·화학·플라스틱(138)은 2분기를 밝게 전망했다.

2분기 BSI 전망치는 비수기였던 전분기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결과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 등으로 대내외 경영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1

분기에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여건이 완연히 개선되고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체감경기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다음 분기에는 둔화 또는 하강세면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기 호전세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가 반영되면서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적이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회복 불씨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호남지역 해상교량 전국 70% 건설·보수 전담조직 신설해야

호남지역의 해상교량이 국내 전체 해상교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건설과 안전관리, 보수 등 이를 통합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장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의산국토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국도상 해상교량은 모두 57개로 목포대교와 거금대교, 암해대교 등 20개는 이미 완공됐고 새천년대교, 세풍대교, 군장대교 등 28개는 시공 중이며 추후~비금간 54km 교량 등 14개는 계획 단계다.

이는 국내 국도상 전체 해상교량의 67%, 연장의 74%, 건설 비용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일기관으로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의산국토청 관내에 전국 섬의 65%, 도서면적의 73%, 도서인구의 44%가 집중돼 있는데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평균 1.75km에 불과해 교량 연결에 적합한 지형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상교량의 계획과

시공은 익산국토청이, 안전 점검과 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보수와 보강은 국토사무소가 담당하는 등 계획에서 건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책임주체가 서로 달라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의산국토청 관계자는 “해상교량 대부분은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어 사업 규모나 시공 기술, 안전과 품질 관리 모두 일반 교량과 달라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현재 196억원에서 10년 뒤 773억원, 20년 뒤 2212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 관리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서울국토청은 민자도로 관리과를, 부산청은 도로공사과를 신설해 계획에서 설계·시공·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기업 재기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17일부터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중이다.

이 사업은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으로 구분되며 진로제시컨설팅은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회

생컨설팅은 기업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유럽 공략 나선 삼성 시스템 에어컨** 18일부터 니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국제 공조 전시회 ‘2014 모스트리 콘베뇨’(Mostra Convegno)에서 모델들이 삼성전자의 최고효율 시스템 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고효율 듀얼 디지털 인버터’ 기술을 채용한 이 에어컨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 광주·전남 중기청-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 천연염색 6차산업 육성 업무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천연염색을 지역 6차산업(농수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복합산업)의 성장동력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일(제)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과 ‘1시군 1천연염색 명품화 지원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는 그동안 천연염색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전남지역 90여 개의 천연염색 업체 중 나주시에만 35개 업체가 집중돼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번 협약에 따

라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등 전문가를 구성해 ‘천연염색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천연염색 대량생산 기반구축 및 첨성 아이템 발굴을 위해 ‘천연염색기와 다양한 창업아이템 신제품’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천연염색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전국 체험산업’을 조사하는 한편, 천연염색 체험산업 콘텐츠도 발굴하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0.21 (+12.68) ▲ 코스닥지수 541.15 (+5.33) ▼ 금리(국고채 3년) 2.84% (-0.01) ▲ 원·달러 환율 1069.20원 (+1.80)

## ‘아름다운 동행’ 출범

광주·전남 기업들이 “2분기 경기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4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역 116개 제조업체의 2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는 ‘11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분기의 ‘87보다 무려 29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치 ‘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BSI 전망치가 110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분기(114) 이후 2년 만이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40%(전분기 17.6%)로 ‘불변’ 35%.

## 광주상의 ‘BIS 116’

1분기보다 29P 상승

2년만에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도 호전 전망

## 1분기보다 29P 상승

2년만에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도 호전 전망

## 2년만에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도 호전 전망

중소기업도 호전 전망